소년단

1956.8

쏘련 군대 아저씨 잊어버렸어요! 송 영남 작

앞표지 — 새 학년도의 첫 등교 리 건영 그림

리 맥

오각별 공화국기 손에손에 날리며
동무들아 광장으로 줄달음치자.
오늘은 8.15 우리 나라 명절날.
우리들의 배움의 길 활짝 열린 날.

다발다발 꽃다발 손에손에 들고서
동무들아 발맞추어 노래부르자.
해방의날 8.15 기쁘고 즐거운 날.
쏘련군대 아저씨께 감사드리자.

조국의 평화 통일 향해 일떠선
우리의 아저씨들 뒤따라 나가자.
참좋은 우리 나라 영웅의 나라.
노래하며 자랑하며 명절맞이 하자.

벗들에게 보내는 회답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인 승호리 쎄멘트 공장을 고향에 갖고 있는 동무들! 동무들은 누구보다도 쎄멘트에 대하여 잘 알고 있겠지요.

3개년 계획을 넘쳐하기 위하여 눈부시게 일하고 계실 로동자 아저씨들의 모습과 복구 건설에 많이 필요되는 쎄멘트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을 퍽 알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동무들의 회답을 바랍니다》.

이곳 소년단원들은 동북 길림성 제1 초등 학원 대 제1 분단 동무들의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대 위원회에서는 쎄멘트 공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공장을 견학하고 회답을 썼습니다.

× ×

사랑하는 동무들!

동무들의 편지는 우리들을 몹시 기쁘게 했습니다.

곧 회답을 써 보내려고 했습니다.

승호리 쎄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모두 우리들의 아버지 형님 누나들입니다. 그리고 공장 가까이에 사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회답을 곧 쓸 수 없었습니다.

늘 보고 듣고 하는게 쎄멘트 공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무는 석회석만 가지고 쎄멘트를 만든다고 했고, 또 어떤 동무들은 진흙이랑 철광석도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속담의 가르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우리들은 어저께 쎄멘트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먼저 기사장 아저씨로부터 이 공장에서 쎄멘트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기사장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 교과서를 펼쳐 보았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점회석(석회석과 진흙으로 된 돌)으로 쎄멘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석회석에다가 진흙을 비롯하여 철광석, 규석, 석고 등을 섞어서 만들고 있답니다. 쎄멘트를 만드는 방법이 자연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는 간단히 썼겠지만)

산에서 까 온 석회석을 잘게 부스러뜨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조금 섞어서 가루를 만듭니다. 이 가루를 물로 반죽을 하고 이 반죽에다가 철광석과 규석을 섞어서 다시 반죽한 것을 체에다 받은 다음 1,500도가 되는 로(가마)에 굽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석고를 섞어서 식힌 다음 보드랍게 만들면 쎄멘트가 되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이 자연'과에서 배우게 될 《먼지로 된 집》이라는 이야기의 《먼지》랍니다.

이렇게 써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각직장에서 선물 받은 표본들을 설명과 함께 따로 보내드립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견학에서 그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기사장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채석 직장, 파석 직장, 원료 직장, 소성 직장, 쎄멘트 직장 등을 차례로 견학했습니다.

특히 머리에 남은 것은 채석 직장과 소성 직장의 견학이였습니다.

석회석을 캐내는 만달산의 채석 직장은 참으로 굉장하였습니다. 전기 장치로 산에서 캐여진 석회석은 파석 직장에 전차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고향 부근에 묻혀 있는 석회석만 가지고도 3천년을 쓰고 남을만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석회석을 마음대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고 닦아야 한다고 기사장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지금 날마다 왜놈때보다 1.6배나 더 많은 쎄멘트를 만드는 것은 공장의 주인이 된 로동자 기술자들이 훌륭한 기술을 배워 새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이였습니다.

이처럼 무진장으로 많은 석회석은 새 기술로 힘차게 일해 나가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으로 련방 쎄멘트가 만들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동당 제3 차 대회에서는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해마다 100~150만톤 이상의 쎄

채석 직장

파석 직장

멘트를 각 공장과 건설장들에 보낼것을 내세웠는데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느 쎄멘트 공장보다도 더 많은 쎄멘트를 보내겠다고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동무들도 선생님들에게서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알고 싶어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인조섬유에 대하여도 들었습니다.

석회석을 가지고 카바이트를 만들고 또 그 카바이트를 가지고는 알콜도 만들고 인조 섬유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돌로 된 옷》이라는 이야기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돌로 만든 실로 짠 옷을 입게 될테니까요!

우리들은 과학과 기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6월에 3개년 계획을 넘쳐 다한 자랑도 높이 눈부시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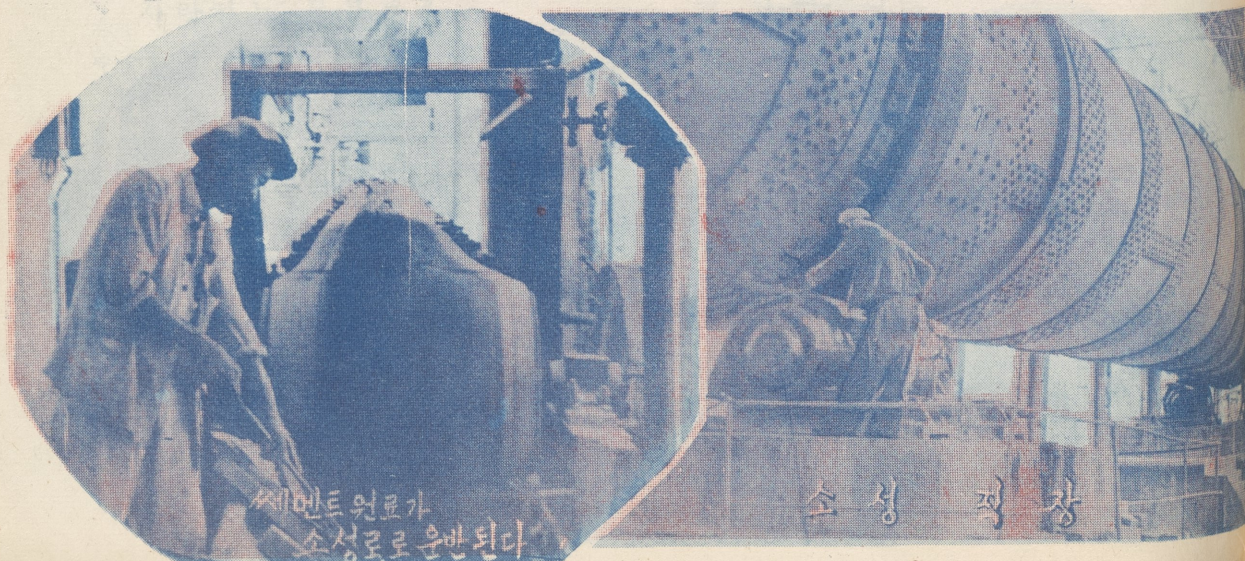
힘든 일은 대개 기계들이 해주기 때문에 로동자들은 돌아가는 기계들을 보살피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쎄멘트를 구워내는 소성 직장에서는 이 공장의 자랑인 박 성국 로력 영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로력 영웅 아저씨 옆에 서서 제법 소성공 처럼 색안경을 가지고 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로 안에서는 세찬 불'길이 타번지고 있었습니다. 박 성국 로력 영웅 아저씨는 로 수리하는 회수를 적게하면서 로 돌아 가는 속도를 빨리하여 좋은 쎄멘트를 빠르게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석회석으로 카바이트, 알콜, 비료, 인조섬유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견학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동무들에게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무들! 회답이 늦어진데 대하여 량해를 바랍니다.

동무들의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성과를 바라면서 소년단 인사를 드립니다. (1956.7.10)

평남 승호군 제 1인민학교 대를 대표하여
김치억 박춘능 권진욱
리선옥 김련화 김인봉

세멘트원료가 소성로로 운반된다

소 성 직 장

파도치는 항구

리 진 화

1

서울 서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서 먼저 눈에 띄우는 것은 여기저기 솟은 굴뚝들입니다. 공장이 많은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굴뚝들에서 내뿜던 연기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고 다만 하나둘 가냘픈 연기를 뿜고 있던 굴뚝들 마저 인제는 아주 연기뿜는 일을 그쳤고 굴뚝갓으로는 세찬 해풍에 시달린 까마귀들만이 고달픈 날개를 쉬려고 날아들군 했습니다.

이런 굴뚝들중의 하나였던 섬유 공장에서 하루에 열두시간 이상의 고된 일을 하고 있던 두성이 어머니는 그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게 되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대야 할 학비 나올데가 없어진 열 네살나는 두성이도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한 해만 쉬여라. 딴 일자리를 얻게 되면 너를 다시 학교에 넣어 주지 않으리—》

눈앞이 캄캄해진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이 항구는 어머니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다 못하여 어떤 장사치에게서 날세로 재봉틀 한대를 얻어놓고 삯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여난 어머니였으나 고단한 일이였습니다. 제놈들이 불지른 전쟁으로 황폐할대로 황폐한 항구에 우글거리는 "국군" 장교들은 해진 군복을 값을 안치르고 기워갔고, 경찰놈의 녀편네들은 만든 옷에 흠을 붙여 값을 깎았습니다. 게다가 장사치는 불같이 재봉틀 세를 독촉했습니다.

《일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은 업수임을 받고, 못살게만 만들어진 세상이고나》.

하고 하루의 고된 삯팔이에서, 콩도래죽 한끼 벌이를 겨우 할 수 있은 어머니는 혼자'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을 뒤적거리며 자습을 하던 두성이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살아나가기에 고달파하는 자취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인제 형이 "국군"에서 돌아와 일자리를 얻게되면 난 학교에 들어갈수 있을거야요》.

어머니의 벌이만 가지고는 학교는커녕 하루 한끼의 죽도 먹기 어려움을 느낀 두성이는 부두에서 일하다 "국군"으로 끌려간 형이 행여나 돌아 왔으면 하는 희망을 부쳤습니다. 그러나 두성이의 이런 희망마저도 깨졌습니다. 리승만 "정부"란 것이 형을 "국군"에서 풀어놓아 주기는커녕, 자꾸 젊은이들을 병정에 강제로 모아들여 전쟁을 또 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게 된 까닭이였습니다.

두성이는 다시 학교에 들어간다는 일을 단념했습니다.

《어머니! 나 부두에 나가 일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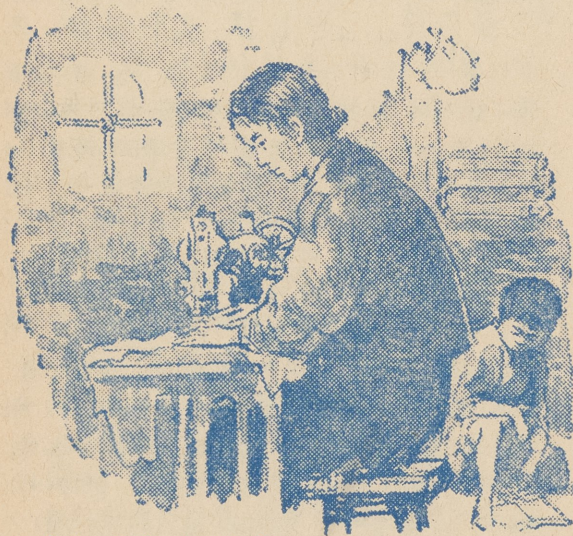
어머니는 재봉침을 돌리던 일'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밥이 달린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두엔 네가 할 일자리란 없다》.

《노마가 하는 일을 내가 왜 못해요?》.

《노마는 너보다 두살 위구, 기앤 나이보다 몸집이 숙성한 애가 아닌?》.

《노마가 등짐을 두번 질 동안 난 한짐씩 져내죠 머— 삯전을 조금씩이라두 벌 수 있을게 안야요?》.

《얘, 그만둬라, 배에서 짐을 푸는 일은

네게 시킬 수 없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들었습니다. 등짐과 함께 발판에서 바다'물에 떨어져 아무런 치료도 못받고, 그 인줄로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한 까닭이였습니다.

《어머니— 하여튼 난 학교엔 다시 안 갈테니깐 나 때문에 안달아 하지 마세요— 일자리를 찾겠어요》.

두성이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2

이 항구 도시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자던 그 굴뚝들중 하나에서 연기가 솟기 시작한 그것입니다. 물건만들 원료를 독차지하여 가져가고 제놈의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을 실어들여 비싼 값으로 팔아 먹는 미국 놈이 경영하는 "무역 상사"라는 괴물이 공장을 차지하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까닭이였습니다.

《끌 좋다. 배 주고 속 빌어 먹는다더니 이건 배 주고 속까지 빼앗기는 셈이군》.

몇몇 부두 로동자들이 연기 솟는 굴뚝을 바라보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공장은 그전 일본 사람의 것이였던 것을 리 승만 "정부"가 독차지하고 배'속이 맞는 그 괴물에게 "불하"라는 이름으로 팔아먹은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는 이 고장에서 나는 수산물과 농산물들을 통졸임해서 제나라로 실어 내는 것이였습니다.

괴물은 공장에서 더 많은 리익을 보기 위해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킬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괴물은 소년공들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구요? 어린 탓에 임금을 적게 줄 수 있고 로동 시간을 길게 주어서 어른이 할 분량의 일을 다 시켜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두성이는 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공장에 일하러 들어가던 첫 날 두성이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두 인제 임금을 받을게 안야요? 때때루 잡곡 밥이라두 먹을 수 있을거야요》.

어머니는 아들의 파리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채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 ×

먼지 뽀얗게 이는 공장 안에서 기계를 닦고 있던 두성이는 누가 어깨를 치는 바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장 감독이 두성이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옆에는 코'대가 납작하게 망가진 테로단원 한 녀석이 몸집을 흔들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두성이는 감독과 테로단원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감독이 두성의 코 앞으로 주먹을 내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자식이 너를 이 공장에 소개했느냐, 속였지 응? 이 공장에선 너 같은 자

식을 일 시킬 수 없다. 당장 나가—》.

두성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난 소개 없이 이 공장에 들어 왔어요. 나더러 뭘 속였다구 그래요— 왜 날 나가라는 거야요?》.

테로단 녀석이 나서며 두성이의 턱을 받쳤습니다.

《조그만 자식이 때먹지 않게— 나가라면 썩 나가지 무슨 잔소리야》.

두성이는 턱을 받치는 테로단 녀석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뭣 때문에 나가란 말이요. 난 내쫓길 일두 안했는데 왜 그래요 왜—》.

《이 자식이— 그건 네 집에 가 물어 보란 말이야》.

두성이는 소년이였습니다. 테로단 녀석과 감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성이는 그만 공장 문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3

두성이가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어머니는 방에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안은 버리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동안 방안에 멍하니 섰던 두성이는 밖으로 나서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노마 어머니가 뜰로 들어섰습니다.

《아침에 "국군"씨아이씬가 한 녀석들이 뛰여 들어 집을 발칵 뒤집구 너의 어머니를 데리구 갔단다. 노마가 뒤따라 갔으니까 이제 오면 알게다—》.

《그놈들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걸려구요》

그러며 두성이는 밖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두성이의 이 기세로는 씨아이씨 놈들의 사무실을 들부실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두성이는 얼마 달리지 않아서 돌아오는 노마와 마주쳤습니다.

둘이는 집으로 걸었습니다.

《두성아, 념려할건 없다. 인제 어머니는 곧 나오실 거니깐—》.

《그놈들이 울 어머니를 왜 붙들어 갔단 말이냐?》.

《너의 형이 "국군"에서 달아났대—》.

《달아났다구? 그래서 공장에선 나를 내쫓았구나— 형은 그것이 잘한 일일가? 인젠 형을 다 만났구나—》.

《잘 한 일이냐구. 그래, 한 번 겪은 일이 아니였니, 너의 형이 다시 미국놈의 대포 밥이 되길 바랄 수 있어? 형이 너와 어머니를 망쳐 먹었다구 생각해선 안된다. 그와 반대니까. 형은 전쟁을 반대하구 있다. 그러지 않구는 우리들두 더 어떻게 살 수 없는거야》.

《인젠 우린 어떻거니 어떻게 사느냐 말야—》.

《이제 잠자쿠 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 알게돼—》.

두성이는 노마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성이는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더 마음이 쏠려있었던 때문이였습니다.

저녁 때 두성이 어머니는 돌아왔습니다.

놈들의 매질의 흔적인듯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두성이는 달아나가 어머니를 끌어 안으며,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두성이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루는 아무리 견딜려 해두 도무지 견딜수 없는 것 같구나—》.

4

아침이였습니다.

항구는 쥐죽은 듯 했습니다. 때때로 바다 멀리 머물은 검은 기선에서 뛰는 기적소리가 항구로 울릴 뿐이였습니다. 마치 기선에 실어온 무기짐을 얼른 퍼내리우라고 "명령"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을 지켜 부두'가로 나서는 로동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로동자들이 한 사람처럼 창고앞에 모여 움직이지않고 있었습니다. 삯전을 올려놓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항구에 닿아있는 부두 사무실로 배'주인들과 그의 졸개들이 들락날락했으며 순경들이 그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동자 아저씨들은 태연한 얼굴로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쉬고 있을 뿐이였습니다.

부두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돌아온 두성이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부두 로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어요》.

《해야할 일을 시작한게다》.

그러며 어머니는 재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재봉하는 일'감을 바라본 두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재봉침에 먹여 나가는 것은 옷감이 아니라 붉은 기폭이였던 때문이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뭡니까—》.

《노마가 만들어 달랜거다》.

《뭘 할거래요》.

《인제 노마가 찾으러 오거든 물어 봐라》.

노마가 바삐 들어왔습니다. 노마는 다 당친 기폭을 포개여 품에 넣으며 소곤거렸습니다.

《이전, 공장의 소년공들이 받고 나설 프랑카트야》.

《소년공들도 오늘 일을 안하니?》.

《소년공들 뿐이겠니? 모두 그렇지—공장에서는 오늘 헛 고동만 될거다》.

《프랑카트에는 뭐라구 쓰니?》.

《평화 통일 만세라구 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너두 나두 학교에 다닐수 있다. 너의 어머니두 로동한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게구—》.

노마는 밖으로 달아 나갔습니다.

《어머니— 나두 노마를 따라 갈테야요》.

그러며 두성이도 달아나갔습니다.

괴물의 공장에서 고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으로 들어서는 로동자는 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공장 정문앞으로 몇 명의 로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두 로동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공장문 앞을 지나 부두'가로 뚫린 곧은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이들의 머리우로는 프랑카트가 나부꼈습니다.

사이'길 옆을 지날 때 마다 대렬은 늘어갔습니다. 부두 로동자들과 공장 로동자들이였습니다. 이와함께 프랑카트도 늘어갔습니다.

—전쟁 반대!

—8시간 로동 시간을 보장하라!

—평화 통일 만세!

토끼마냥 순경들과 헌병들은 이리저리 놀라뛰며 자꾸 많아져 가는 대렬을 헤치려고 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굳게 뭉쳐지는 대렬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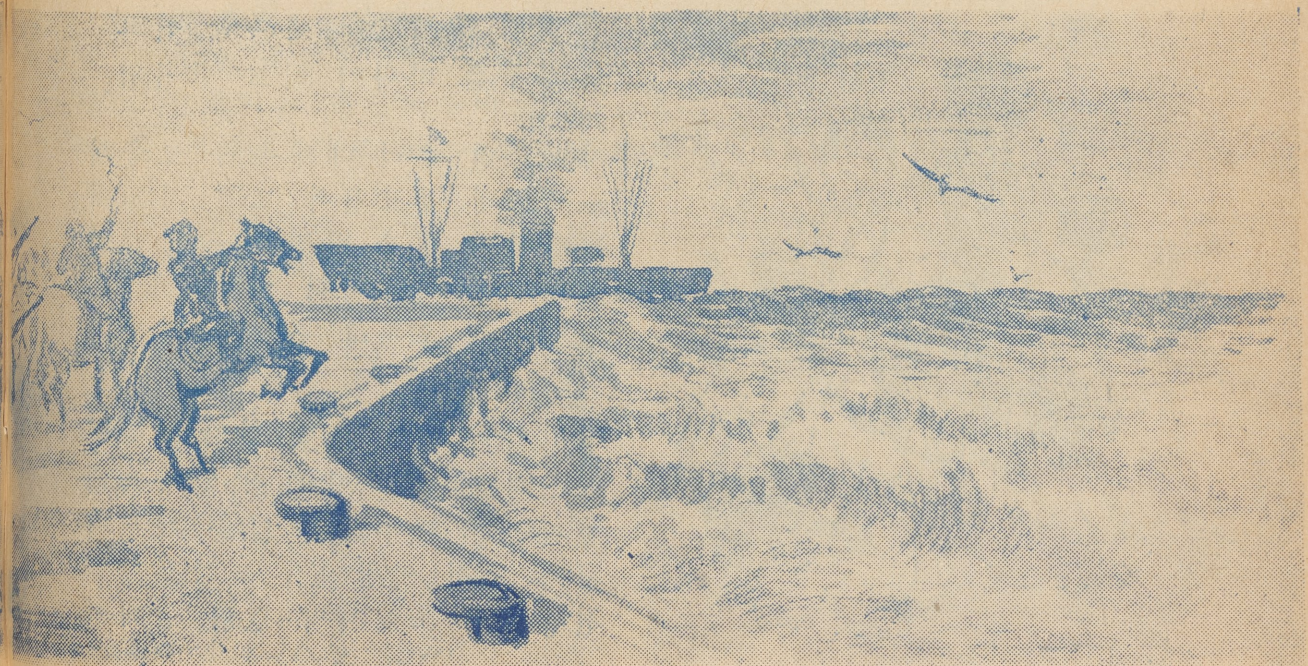
골목 길을 뛰여나온 소년공들의 대렬이 아저씨들의 대렬 속에 안겨 들었습니다. 그 맨 앞에는 노마가 서 있었습니다. 프랑카트가 소년들의 머리우에 펼쳐졌습니다.

—평화 통일 만세!

프랑카트의 한쪽 기'대를 두성이가 들고 있었습니다. 두성이의 마음은 대렬의 흐름에 따라 굳세져 갔습니다. 대렬 속에서 삐라가 휼날기 시작했습니다. 두성이는 삐라를 날리는 손들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어머니의 기찬 얼굴이였습니다. 두성이는 자신과 어머니가 살수 있는 길을 비로서 찾았고 또 걷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두 로동자들과 함께 이들의 파업을 돕는 공장 로동자들의 대렬이 부두에 닿자, 부두에 남아 파업을 단행하고 있던 부두 로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어섰습니다. 파도처럼 밀리여 항구로 나갔습니다. 삐라들이 로동자들의 물'결우로 날았습니다. 공장 로동자들의 대렬은 곧 이들의 대렬로 따라서며, 항구 거리를 구호의 웨침과 프랑카트의 물'결로 채웠습니다,

순경놈들과 헌병놈들이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고, 말탄 순경들이 대렬을 헤치려 들었으나 뭉쳐진 대렬은 파도처럼 항구로 밀려들었습니다. 인젠 그 어떤 폭행으로도 헤쳐놓을 수 없게 굳게굳게 뭉쳐진 이 항구 도시를 휩쓰는 거센 파도였습니다.

(1956. 7. 10)

학교 갑니다

김 영

기다리던 오늘은 새학년 첫날
뭉게뭉게 꽃구름도 피여 고운데
새 책가방 달랑달랑 새 모자 쓴
일학년 꼬마들의 손목을 쥐고
우리들은 나라니 학교 갑니다.

자랑스런 우리 나라 의무 교육제
노래노래 부르면서 모두 가는데
가슴마다 훈장 번쩍 공장형님들
벽돌실은 자동차의 아저씨들도
잘배우고 오라고 손저 줍니다.

집집마다 나이 찬 애 찾아 오셨던
녀선생님 교문 앞에 서 계시는데
꼬마들은 경주하듯 앞을 다투며
제가 먼저 아침인사 드리겠다고
선생님! 소리치며 달려 갑니다.

분단의 열성자들

새 학년도가 시작된 어느날 아침이였다.

가로수 우거진 선천 거리를 활개치며 걸어가는 학생들 속에서 나는 꽃다발을 안고 가는 두 소년단원을 만났다.

붉은 넥타이 휘날리며 아침 일찍 등교하는 그들의 씩씩한 모습, 웃음띈 얼굴들이 무척 내 마음을 끌었다.

그들은 선천 제2 인민 학교 제1분단 소년단원들이였다.

나는 귀여운 두 동무와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너희들 그 꽃다발은 무엇하러 가지고 가니?》하고 물었을 때 한 소년이 선뜻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 분단에서는 열성자 선거가 있어요. 이 꽃다발은 새로 선거되는 열성자들에게 안겨 줄 거예요》라고 하는 것이였다.

《그럼 너희들은 누굴 열성자로 선거해야겠는지 생각들 했겠구나》.

그러자 두 소년은 《하구 말구요. 우리는 항상 공부 잘하고 반과 분단의 모든 일에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 있는 동무들을 선거 할테야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 ×

이날 오후 분단 모임을 알리

는 종소리와 함께 5학년 1반 교실에는 제1분단 동무들이 모여 들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웃음꽃 피우는 그들의 얼굴은 모두다 명랑하였다.

반별 인원 보고가 끝나자 열성자 선거를 위한 모임은 시작되였다.

처음에 분단 위원장 리 찬복 동무가 지난 한해 동안 분단 위원회가 해온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분단에서는 전 윤숙 동무와 같이 산수'과 성적이 매우 낮은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전 금덕 김 정숙 동무들과 같이 국어'과에 취미를 못가진 동무들도 적지않게 있었다.

그러므로 분단 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분단 동무들의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최 명실 동무의 제의에 의하여 분단 위원회는 벽보에 "흥미있는 문제풀이"란을 만들고 분단 동무들의 산수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분단 위원회는 여러차례에 걸쳐 소년단원들이 즐기는 읽은책 모임을 가지고 어린 독서가들을 많이 길러 냈으며 국어'과 학습을 훌륭히 도왔다. 그리고 실습지를 가꾸면서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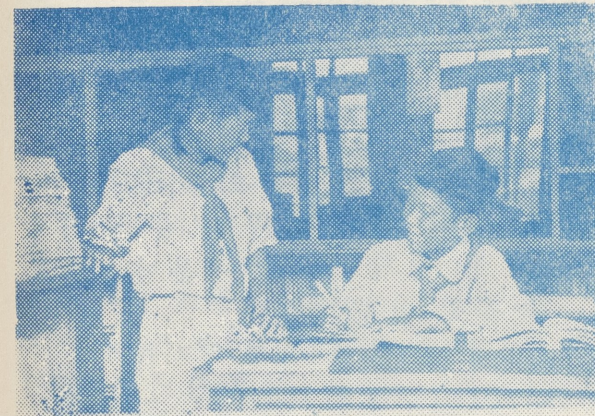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까지 분단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즐기는 체육, 연예, 견학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

분단 위원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토론이 시작되였다.

처음에 토론한 동무는 내가 아침에 거리에서 만났던 전 윤숙 동무였다.

그는 지난 한해 동안 자기의 분단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2학기까지 받아 오던 산수'과의 락제 성적을 퇴치하고 훌륭한 성적으로 5학년에 진급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단과 반에서 꾸준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분단 위원회가 그의 산수'과 성적을 높여 주기 위하여 열성자 모임에서 의논하던 일과 그후 반장 최 명실 동무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오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분단 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분단 동무들이 즐기는 행군 견학들을 제때에 조직하지 못하였던 결함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재미나는 자연 관찰과 실험들을 해가며 훌륭한 솜씨들을 자랑할 창작품 전람회도 가지자고 하였다.

다음은 4반 반장 김 치룡 동무가 토론에 나섰다. 그는 분단에서 말썽 많던 4반이 모범적인 반으로 되기까지 분단 위원회의 꾸준한 지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4반 동무들 가운데는 한때 자기의 힘을 뽐내며 때로는 동무들과 싸워 분단에 말썽을 끼치는 동무도 있었고 분단이 실시해온 조기 체조에도 많은 동무들이 참가하지 않았었다.

이때 분단 위원회는 그들의 생활을 바로 잡기 위한 열성자 모임을 가지고 분단 위원장 리 찬복 동무에게 그들의 규률있는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후 찬복이는 4반 동무들에게 우선 조기 체조로부터 규률있게 실시하도록 하였고 조기 체조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꼭 해 나가도록 하였다.

반에서는 때때로 읽은책 모임을 가지였고 등산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반 생활은 다시 규률 있고 재미나게 진행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분단 위원회는 많은 동무들이 백토를 가지고 훌륭한 모형과 조각품들을 만들고 있으나 학교에 그들을 위한 "재간 있는 솜씨 크루쇼크"가 조직되도록 도와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토론은 계속되였다.

많은 동무들은 지난해 분단이 해 온 훌륭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 선거될 열성자들은 분단 동무들의 재간 있는 솜씨를 더욱 발전시키며 체육, 연예대 사업들도 훌륭히 해나가자고 하였다.

끝으로 분단 지도원 선생의 간단한 말씀이 있은다음 곧 선거에로 들어갔다.

선거 규정이 해설되고 선거할 열성자 수를 정한 그들은 립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시작하였다.

《리 찬복 동무를 추천합니다》

《나는 최 명실 동무를 추천합니다》.

여기 저기서 일어난 분단 동무들은 각각 립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것이였다.

추천된 립후보자들은 모두 최우등생들이며 분단 사업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가한 동무들이였다.

그들은 선거에서 분단 동무들의 한결같은 찬성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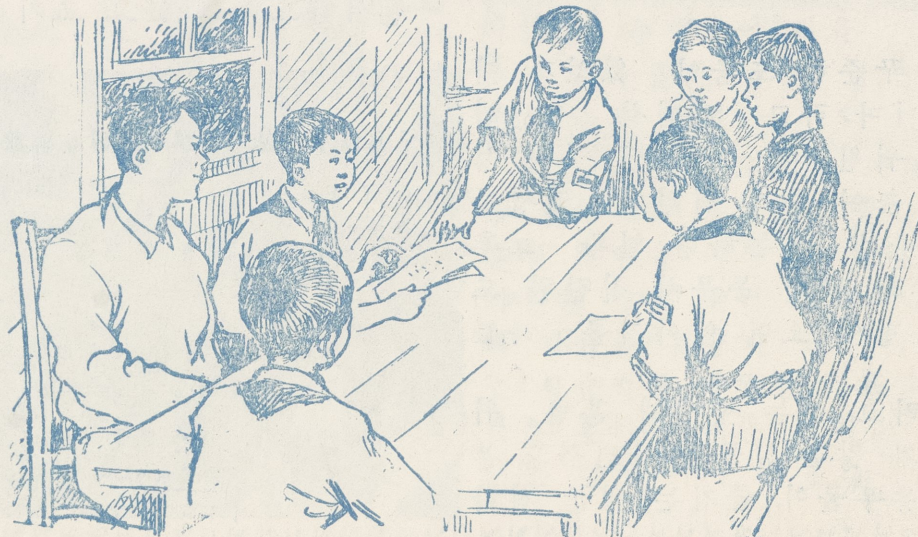
선거된 새 열성자들에게는 분단동무들이 정성 담아 만든 꽃다발이 안겨졌고 모두들 그들을 박수로 환영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열성자들은 첫 열성자 모임을 가지였다.

이 모임에서 리 찬복 동무는 다시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 되였고 배 순균 동무는 분단 기수로 장 명희 동무는 분단 벽보 주필로 임명되였다.

평북 선천 제2 인민 학교 대에서

신 진 균

독자 문예

«편지» 나의 동무 미샤에게

나는 오늘 8•15 열한돐을 맞이하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8월 1일 새학년도를 맞이한 우리 학교 전체 소년단원들은 한 학년씩 진급한 자랑도 높이 학습에 열중하고 있단다. 더우기 이번 8•15 열한 돐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사람 같이 학습 성적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단다.

미샤야! 나는 이번 여름방학의 한동안을 즐거운 야영의 나날로 보내면서 쏘련 삐오네르— 즉 너와 너의 동무들이 거둔 훌륭한 사업들을 소개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또 선생님에게서 말씀도 많이 들었단다.

쏘련 삐오네르들의 사업 경험은 우리들의 소년단 사업에 많은 도움으로 되고 있단다.

미샤야! 작년 8•15 열돐을 기념하여 네가 보내준 하모니카로 나는 지금 음악련습을 하고 있다.

이번 열리는 8•15 열한돐 경축 써클 대회에서 친선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 꼭 1등의 영예를 쟁취할 작정이란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주마. 그것은 벽돌공인 우리 아버지가 벌써 3개년 계획을 완수하였단다.

그래서 이번에 표창과 상금도 받게 되신다는 것이다.

친근한 벗 미샤야!

지금 평양의 여러 곳에 있는 아동 공원 아동 극장들에서는 명절맞이 준비로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럴때마다 나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는 우리 나라 정부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 또한 우리를 해방 시켜준 쏘련 나라가 끝없이 고마워진단다.

나는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학습을 더 잘하며 소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할 것을 맹세한다.

나의 벗 미샤!

명절을 맞는 나는 너에게 소년단 경례를 보낸다. 너의 동무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 주기 바란다.

레닌그라드 86호 학교 제 6학년 미샤에게

평양 제3중학교(인민반)제4학년 11반

최 치 원 보냄

(동요)

우리 학교 해바라기

평북 피현군 북삼 인민 학교 대 제2분단 한 농섭

우리 학교 꽃밭의 해바라기는
날마다 우쭐우쭐 자라납니다
자랑스런 우리 명절 8•15날엔
해'님처럼 활짝활짝 피겠답니다

우리 학교 꽃밭의 해바라기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합니다
쏘련 나라 아저씨들 가져온 명절
8•15날 꽃폈다고 기뻐합니다

이 스케취는 조선 소년단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원 예술 축전에서 스케취 부문 1등상을 받았다.

스케취 《우리는 맹세한다》는 강원도 원산 사범 전문 학교 부속 인민 학교 연예 대원들이 출연하였었다.

우리는 맹세한다 (될터이다)

김 학 선 시
김 병 현 곡

나는나는 공화국의 로동자가 될터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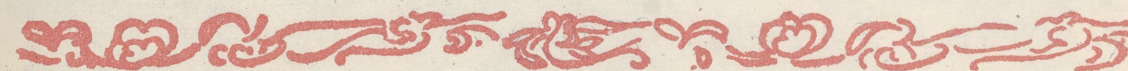
2.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공화국의 기술자가 될터이다.
3,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공화국의 선생님이 될터이다.
4.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협동 마을의 모범 조합원이 될터이다.
5.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공화국의 인민 군대가 될터이다.
6.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공화국의 체육가가 될터이다.
7.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공화국의 의사가 될터이다.
8.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공화국의 음악가가 될터이다.
9. 될터이다 될터이다 무엇이 될터이냐
   나는나는 공화국의 무용가가 될터이다.

리 동 근

옛날 어느곳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지주네 밭에가서 일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리죽도 없어서 풀'잎으로 나물죽을 써 먹으면서 겨우 살아갔습니다.

설날이 닥쳐왔습니다. 동네에서는 떡 방아를 찧는다 새옷을 짓는다 야단들이지만 가난한집 아들은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어머니는 나물죽을 써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로인이 배낭을 지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들어왔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뒤'이어 아들도 나무'짐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음 착한 어머니는 두 그릇 밖에 안되는 나물죽을 로인과 아들에게 주면서 《나물죽이나마 많이 잡수시오》라고 친절하게 로인을 대접했습니다. 로인은 저녁을 맛있게 잡수시고 어머니에게 치사한 다음 생활 형편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주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쓰라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인은 어머니의 말을 듣더니 배낭에서 작은 매'돌을 끄내놓으면서《이 매'돌을 오른쪽으로 돌

리면서 요구되는 것을 달라고 하면 곧 나올게오, 만약에 쌀이 요구될땐"매'돌아 매'돌아 쌀을 주렴아"하면 쌀이 나올것이요, 그리고 만족되였을 때는"매'돌아 매'돌아 그만 주렴아" 하고 왼쪽으로 세번 돌리면 멎을 것이오》.하고 말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너무 기뻐서 인사를 드리고 머리를 들고 보니 로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신기하게 여기면서 매'돌을 만지다가 시장한 김에《매'돌아 매'돌아 떡을 주렴아》 하고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떡이 줄줄 나왔습니다.

떡이 한 함지나 나왔을때 어머니는 다시《매'돌아 매'돌아 그만 주렴아》하고 왼쪽으로 세번 돌리니 나오던 떡은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면서 집집마다에 한 그릇씩 돌려주었습니다.

지주네 집에도 한 그릇 가져갔습니다.

동네사람들은《그 집에 웬 쌀이 있어 이렇게 떡을 많이쳐서 집집마다 돌릴가?》하고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욕심많은 지주는 그의 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밤은 몰래 그 집에 가서 문창 구멍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때 어머니와 아들은 등'불

밑에 앉아서《매'돌아 매'돌아 돈을 주렴아》하고 작은 매'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매'돌에서는 돈이 데굴데굴 굴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탐낸 눈매로 들여다 보던 지주는 어머니와 아들이 잠자기를 기다려서 매'돌을 훔쳐냈습니다. 지주는 매'돌만 있으면 어느곳에나 가서 살 수 있다고 맘먹고 그날 밤으로 집안 식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바다에 이르자 배를 탔습니다. 지주네 식구는 한참 바다를 건너다가 가지고온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맨것을 먹자니 너무 신거워 소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지주는《옳지!》하고 무릎을 탁 치더니 매'돌을 내놓고《매'돌아 매'돌아 소금을 주렴아》하고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소금은 술술 나왔습니다. 지주네 식구는 손'벽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소금이 수두룩히 나왔을때 지주는《매'돌아 매'돌아 그만 주렴아》하고 매'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끝치지 않고 자꾸 나와 배에 찰 지경이였습니다. 지주는 당황하여《그만 주렴아 그만 주렴아》하고 고함쳤습니다. 그러나 매'돌을 오른쪽으로만 돌리였으니 멎을리가 없지요. 배는 점점 바다'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욕심많은 지주네 식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엉엉 울다가 바다'물에 빠져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농민들은 지주가 도망친 후 지주의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가난한집 어머니와 아들도 자기 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잘 살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매'돌은 어떻게 되였을가요?

매'돌은 바다에 빠진채 소금이 계속 나온답니다. 그래서 바다'물은 짭다나요…………

위대한 은공

1945년 8월 15일!

쏘련 군대는 우리 조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강도들을 몰아 내였다.

조선 인민은 해방되였다.

그때로부터 11년이 지났다.

위대한 쏘련 인민의 해방과 원조의 은공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건설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이렇듯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찬란히 빛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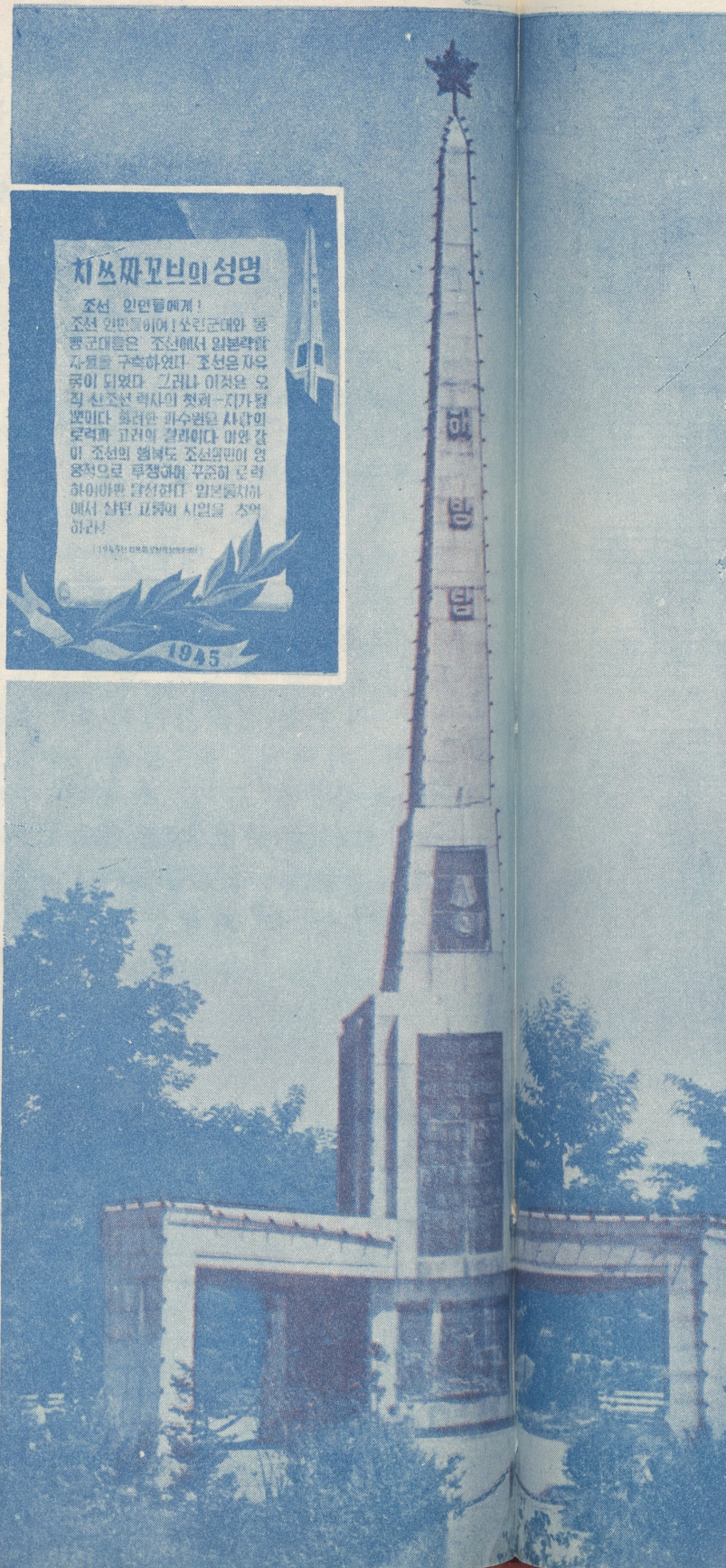
쏘련 군대의 힘으로 해방된 우리 조국은 인민의 나라로 되였다.

인민의 나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영웅 나라로 되였다. 전세계 인민들은 우리 인민을 영웅적 조선 인민이라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른다.

공화국 북반부의 방방 곡곡에서는 사회주의로 꽃피여 나가는 건설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이 건설의 노래 속에는 위대한 쏘련 인민의 끝임 없는 원조가 깃들어 있다. 쏘련 인민은 우리 나라의 중공업을 비롯하여 건설 사업, 농촌 경리, 인민 생활 향상 등 인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김책 제철소, 황해 제철소, 남포 제련소, 수풍 발전소, 승호리 쎄멘트 공장, 흥남 비료 공장, 평양 방직 공장, 해어 통졸임 공장 등의 복구와 건설을 원조하여 주고 있다

위대한 쏘련 인민의 해방과 원조의 은공은 우리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 (그림)

치스짜꼬브의 성명

조선 인민들에게!

1945

쏘련 인민의 원조로 복구 건설된 김 책 제 철 소

쏘련 인민의 원조로 복구 건설된 흥남 비료 공장.

쏘련 인민의 원조로 복구 건설된 평양 방직 공장에서 쏘련 직모공이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

조선 소년단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원 예술 축전에서 황해 남도 장연 인민학교 연예 대원들이 출연한 스케취《벽에 걸린 시계》는 이 부문 2등상을 받았다.

벽에 걸린 시계 (스케취)

김인애 곡

언니들은 천세라의 천을 짜내고 자동차도 뻑 대나 만들어낸다
똑 딱 똑 딱 벽에 걸린 시계야 그러나 오늘만은 멎을 수 없지
그ー러면 래일부터 일찍 일어나 다ー시는 지각 않고 학교 갈테다
아니 아니 안ー된다 멎을수 없구나 지금은 어린 시간 첫공부 시간
이제라도 어서 빨리 학교 달려가 래일부터 새ー결심 굳게 먹어라

3절

똑 딱 똑 딱 벽에 걸린 시계야 지금은 몇 시냐 가리켜주렴
그래 지금 한ー시다 놀ー아갈 시간이다 너희들은 오늘 학습 잘하였느냐
선생님의 가르치심 자세히 듣고 오늘 배운 지식은 다 알고 있니
그래그래 고맙다 칭찬하려라 배운 지식 남김없이 다 알고 있다
지ー금은 집ー으로 돌아가는 길 복ー습과 집 일을 잘 도울테다

산간 학교의 꼬마 기상 관측소

전국 소년단원 축전이 열렸을 때입니다. 량강도 운흥군 제3 중학교 인민반 정 치범 동무는 각도에서 모여 온 어린 과학자들 앞에서 자기 학교 꼬마 기상 관측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동무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배움에 불타는 마음들"

우리 고향 량강도 운흥군은 혜산시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1200M가 넘는 고산 지대입니다. 겨울은 길고 몹시 춥지요. 봄과 가을은 짧으며 5월에도 찬 서리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500평 남짓한 실습지를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54년 봄부터 실습지에서 각종 재배 식물을 가꾸어 오면서 점점 식물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기후와 일기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게 되였지요

그것은 그럴밖에 없었지요. 실습지를 처음 가꾼 1954년에는 오래동안 계속된 비와 랭해로 거의 실습지에서 수확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다음해였지요. 전해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른 봄에 온상을 만들고 많은 재배 식물과 함께 우리 고향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는 도마도, 수박, 목화들도 심었습니다.

5월 중순 온상에서 자란 어린 모들을 이식했을 때입니다. 가물이 계속되고 밤은 몹시 찼습니다. 서리가 내릴가 무척 근심되였지요.

우리들은 저녁마다 어린 모들에 물을 주고 종이 모자를 덮어주면서 《래일은 비가 와 주었으

면…》, 《밤새 서리나 내리지 않았으면…》하고 근심했답니다.

우리들은 래일의 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기를 미리 짐작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해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연기가 땅우로 낮추 퍼지면 비가 온다》. 《제비가 낮추 날아다니면 비가 온다》든가 《모기쑥이 눅눅히 젖으니 비가 올 것이다》 등 우리들은 래일의 일기를 알아 마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편 우리들은 자연'과에서 공기, 바람, 구름, 비, 눈, 이슬, 안개 등 자연 현상에 대해 배우게 되였지요.

자연 연구 크루쇼크가 중심이 되여 우리들은 이러한 자연계의 여러가지 현상을 연구하는데 큰 흥미를 가지게 되였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에 불탔습니다.

"첫 걸음"

우리 학교 대 자연 연구 크루쇼크에서 혜산시 기상 관측소를 견학하게 된 것은 작년 7월이였습니다.

흥미를 끄는 각종 관측 기계들로 온도, 습도, 바람, 구름 등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관측하며 연구하는 것을 견학한 우리들은 《기상 관측소가 학교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하고들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기상 관측소 부소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에도 간단한 기상 관측소를 만들고 관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관측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답니다.

견학에서 돌아오자 우리들은 곧 《기상 관측소를 만들자》고 의논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상 관측소를 만드는 사업은 소년단원들의 큰 흥미를 끌게 되고 전체 소년단원

들은 이 사업에 열성껏 참가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과 초급반 물리 선생님은 꼬마 기상 관측소를 설계하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초급반 민청 형님들도 도와주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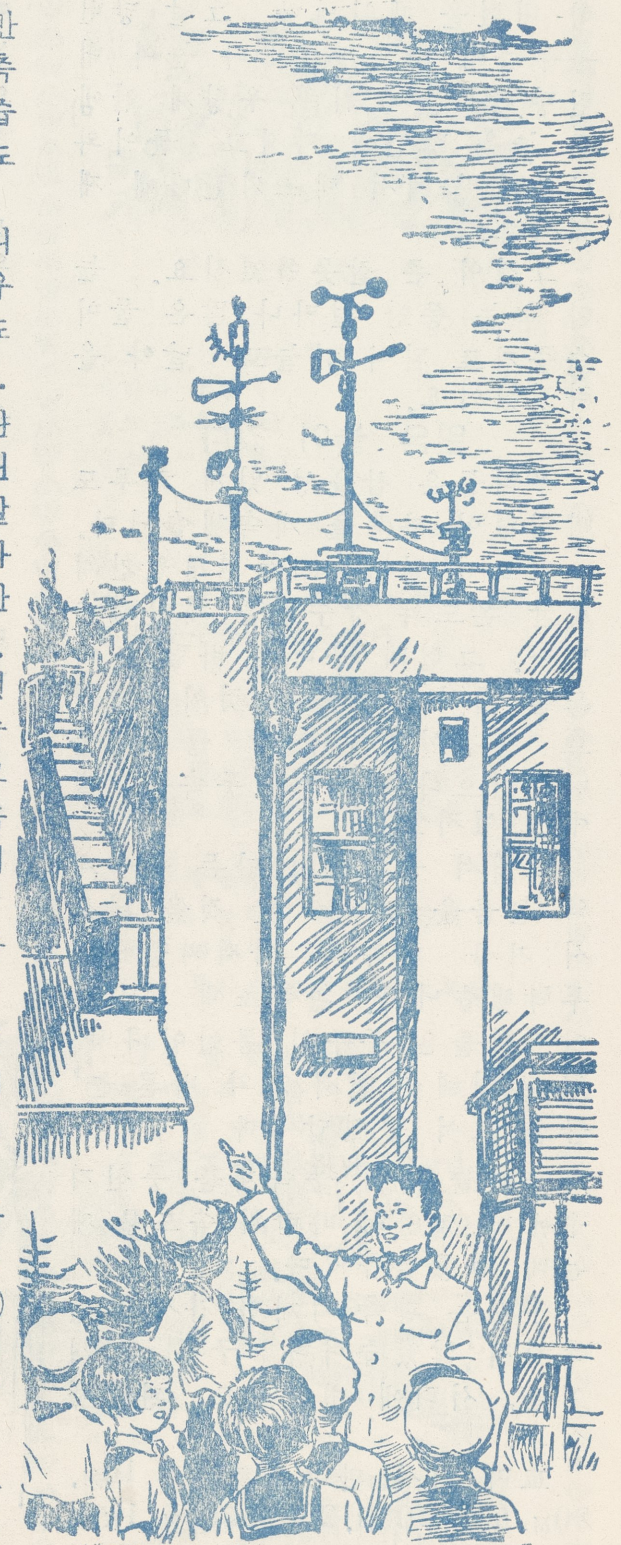
학교뒤 넓다란 언덕우에 우리들은 처음 풍신기를 세웠으며 우리 손으로 백엽상(온도계, 습도계를 넣어두는 함)을 짰습니다.

백엽상의 벽과 문은 기상 관측소의 것과 같이 두겹으로 된 살창을 달아서 만들어 공기는 잘 통하나 해'빛은 비쳐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엽상 안에 두개의 온도계를 세웠지요. 하나는 공기의 온도를 재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온도계는 수은이 있는 끝에 베 헝겊을 감고 그 베 헝겊의 한쪽을 컵의 물'속에 담구어 습도를 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량계도 아주 훌륭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은 공기의 온도, 습도, 풍향, 강수량을 재는 데로부터 관측 사업을 시작하게 되였습니다.

자연 연구 크루쇼크에는 기상 관측반이 조직되여 매일 세번씩 (아침 8시, 오후 2시, 저녁 6시) 관측하고 꼭꼭 관측 일지에 기록하며 그라프에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는 온도 하나 재는데도 과학자답게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눈이 내렸을 때입니다. 그날 당번 동무들이 강수량 (비나 눈이 내린량)을 알기 위해 우량계 안에 든 눈을 방안에 가지고 들어와 난로에 녹여서 메스씨린다에 재였지요.

그것이 큰 잘못이였지요. 눈이 녹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이 수증기로 되여 하늘로 날아 올라갔겠어요.

"일은 늘어 갔다"

우리들은 참을성 있게 하루도 빠짐없이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0일간, 또는 1개월간의 평균 온도와 강수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의 속도를 재지 못하는 것이 참말로 유감이였습니다. 풍속계를 만들었으나 정확한 풍속을 잴수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든 풍속계의 눈금을 조절해 줄 것을 혜산시 기상 관측소 아저씨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관측소에 계시는 아저씨들은 두주일 동안이나 매일 시험해 가면서 거의 바른 눈'금을 그어 주셨답니다.

우리들은 이 풍속계를 풍신기우에다 달아서 바람의 속도를 재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관측 기계만 가지고 관측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안개 이슬, 서리에 대해서도 관측했지요.

ㄸ마 기상 관측소로부터 10M, 20M, 50M, 100M, 200M, 500M, 1KM, 되는 곳에 각각 목표물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꼈을 때에는 그 안개가 몇시간이나 가는가? 그 안개를 뚫고 몇M까지의 목표물이 보이는가? 등을 관찰하고 기록했지요.

겨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온도에 따르는 얼음 언 두터이, 눈의 모양도 관측했습니다.

"우리의 경험"

처음 ㄸ마 기상 관측소를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1년이 가까와 옵니다. 그 동안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해 동안 기상 관측해 온 관측 일지와 그라프를 펴볼 때 우리는 참말로 기쁨과 자랑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관측 결과와 쌓은 경험은 여때까지 우리생활과 실습지 사업에 그리 많이 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관측 결과는 앞으로 많이 리용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한 우리 고향의 평균 온도를 보기로 합시다.

4월 초순에는 0도8부, 즉 눈과 얼음이 땅에 덮여 있었다면 4월 중순에는 4도8부, 5월 초순에는 평균 온도가 9도로 올라갔으며 5월 9일 오후 2시의 온도는 26도 9부라는 놀라운 더위였습니다.

이것만 보드라도 우리 지방의 봄이 짧다는 것과 실습지에는 온실이나 온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녁 안개가 끼고 날씨가 산산한 봄날이면 흔히 찬서리'발이 눈같이 내려 덮인다는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이런때면 우리들은 실습지나 온상의 식물이 찬 서리에 상하지 않도록 벼'짚을 덮어주고 종이 모자를 씌워 줘야 합니다.

금년봄 우리가 관측한 강수량을 본다면 4월 초순 1,6MM, 4월 중순 3,9MM, 4월 하순12,2MM, 5월 상순 29,2MM, 5월 중순11,4MM 5월 하순 4,2MM, 6월 상순 10,1MM였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강수량이 퍽 많아질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계속하여 꾸준히 고향의 일기를 관찰하여 간다면 더 흥미있고 유익한 것을 배우게 될것입니다.

우리들은 학교의 기상 관측소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함남 단천 5중 리 정자

새로 지은 우리 학교
아담한 꽃밭에
붉고 붉은 다리야
탐스러이 피였구나.

이 아침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붉은 다리야 꽃 묶음 만들며
멀리 쏘련 나라 모쓰크바에 사는
쏘냐 동무를 생각한단다.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
봄볕도 따사로웠다.
쏘냐의 정성 어린 친선의 편지
우리 품으로 찾아 온 그 날은.

파아란 꽃봉투 속에
행복스런 쏘련의 소식과 함께
살뜰한 마음씨 스민
다리야 꽃씨도 보냈다는 소포증.

「…교실 앞 꽃밭에 심어
새 학교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요!
곱게 필 다리야 꽃처럼
동무들도 고이 자라고요…」

새로 꾸민 꽃밭에
알뜰히 심고 가꾼 다리야 꽃
쏘냐의 붉은 마음처럼
송이 송이 아름답게 피여났지.

붉은 다리야 고이 고이 엮으며
8·15 열 한돐 자랑스레 맞는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적어
쏘냐 동무에게 꽃편지 띄워야지….

박 승 수

조야와 수라를 낳은
201 중학교를 떠날 때
삐오네르들은 정렬하여
우리에게 인사를 하였다.

사과꽃이 만발하여
향기도 그윽하다.
그러나 삐오네르들의마음
꽃보다 더 아름답구나.

대위원장 유라가 앞장선
일곱명의 삐오네르 대표
정성어린 선물 가득히 안고
우리들의 앞에 나란히섰다.

안주 제1중 학생들이 보낸
벽에걸린 기'발을 가리키며
유라는 말하였다
—조선의 형님들 보십시요
저 기'발엔 이렇게 써 있습
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무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불타는 마음도
바로 이렇다고 전해주시
요…

유라의 손길따라 기'발을
향한
삐오네르들의 맑은 눈들은
웨쳤다.
—우리들은 언제나
조선 동무들을 잊지 않습
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조선 소년들에게 향한 사
랑과
친선의 정 넘치는 그 눈'길
들을…

벽에 걸린 기'발에서
그에 향한 삐오네르들의
눈'동자들에서
나는 다시금 느꼈다.
두나라 소년들의 맺어진
마음을…

가장 고귀한 평화와 친선
위해
두나라 소년들은 이렇게
웨치리.
—우리들은 언제나
동무들을 잊지 않습니다.

1955, 6
201 중학교에서

야·따이쯔

갈랴는 층층대를 다 올라서자 문을 뚜두리려고 하였지만 그렇게할 수가 없었다. 량손 다 뭘 들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한 손에는 책가방을 들었고 다른 손에는 큼직한 종이 말이를 들었던 것이다. 갈랴는 종이 말이를, 마치 라팔처럼 입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 문 열어요!》.

어머니는 문을 열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갈랴야, 어째 이렇게 늦었니? 나는 그만 학교로 달려가려던 참이란다》.

갈랴는 장화에 묻은 눈을 터느라고 발구름을 하였다.

《엄마, 엄만 아무 것두 모르시지! 우린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리구 우리들은 신문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친선》이란 제목으루요. 그런데, 야참 나를 뭘루 임명했는지 알기나 해요? 적어두 주필루 임명했답니다!》

어머니는 갈랴의 외투와 머리 수건을 벗겨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구 그래요— 주필동무, 들어가 저녁 먹습시다!》.

《엄마, 엄마는 나를 도와주시지요. 네?

제목하구 구호만 써주시면 되는걸요! 좋지요. 엄마? 엄마는 예술가가 아니예요. 좋지요?》.

《난 모르겠다. 갈랴야. 난 지금 빨래질때문에 바쁘구나. 그리고 래일은 아침 일찌기 일하러 가야 할테구…》.

《엄마. 아이. 다정한 엄마. 아이 훌룽하신 엄마…》.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 하였다.

《있다가 하자. 있다가! 그리구 끝 손을 씻고 저녁을 먹자!》

《저녁 먹구싶지 않아요!》

어차피 갈랴는 손을 씻고 수건을 가지러 방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아이참. 엄마. 그런데 어데서 신문을 만들어야 한담? 식탁이 온통 그릇으로 가득찼으니 말이예요》.

《허지만 얘야. 네가 치우면 될게 아니냐!》.

《엄마두. 난 짬이 없지 않아요—난 신문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예요!》.

《애두참. 뽐내기두 한다!》.

어머니는 재빨리 식탁을 치우고 나서 갈랴에게 국을 떠 주었다.

《어서 먹어라!》.

갈랴는 뜨거운 국을 훌훌 마시기 시작하였다.

《아이참. 엄마. 이것 봐요. 까쨔 쏘모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째서 갈랴가 주필이 되나요? 어째서 난 주필이 아닌가요?". 허지만 상급 지도원 선생은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갈랴는 어머니가 미술가니까 방조를 받을 수 있지않니!". 까쨔도 그렇겠다고 말했지요…

다른 애들두 말하구…나두 또 말했지요…》.

저녁을 먹고나자 갈랴는 눈을 부비기 시작하였다.

《엄마. 엄만 달리 생각지 마세요. 난 조금두 졸리지 않아요. 난 신문을 만들테야요. 그런데 또 이 그릇이 방해가 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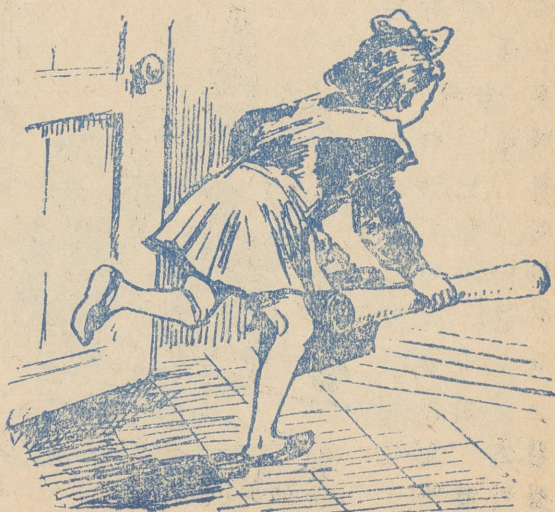
어머니는 또다시 식탁을 치우시고 깨끗이 훔친다음 식탁보를 펴놓고 빨래를 하러 부엌으로 나가셨다. 그러자 갈랴는 종이 말이를 펼쳐놓고 색연필을 꺼내더니 부엌으로 달려 나갔다.

《엄마. 들어가요! 제목하구 구호만 써주시면 돼요!》.

어머니는 손을 딱고 앞치마를 벗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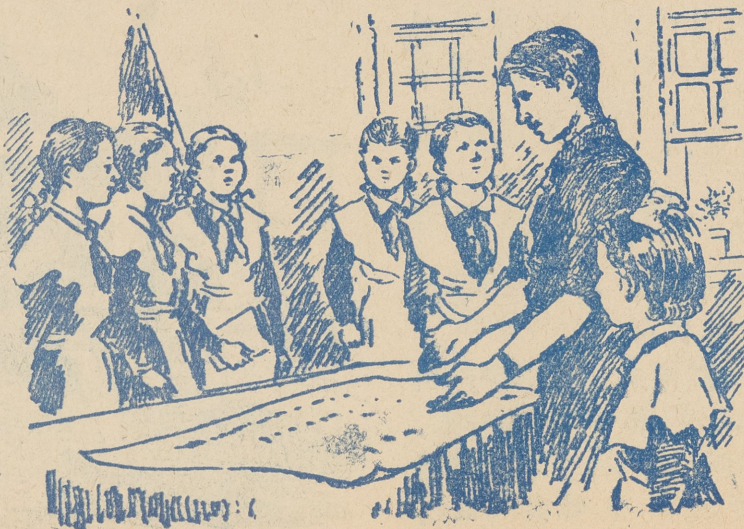
어머니는 연필을 들더니 《친선》이라고 큼직한 글자들을 쓰기 시작하였다. 허지만 보통 글자들인게 아니라, 마치 얼룩얼룩한 점들이 달린 봇나무 회차리로 엮은 글자들이였다…

갈랴는 그 봇나무 회차리들을 유심히 들여다 보자 문득 봇나무 숲속에 간것같은 감을 느꼈다. 나무들이 술렁거리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데ㄴ가 멀리 바로 나무 숲속으로부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어 갈랴야. 너 자니?》.

갈랴는 《아니요. 자지 않아요》라고 대답하고 싶었다—그렇지만 그럴수가 없었다. 그처럼 갈랴는 두갈래로 따은 머리를 큼직한 종이'장 우에 떨구고 깊이 잠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갈랴의 옷을 벗겨서 자리에 눕혀주고 계속 오래동안 신문을 위해서 앉아 있었다. 푸른 연필로 이렇게 쓰셨다. 《2학년 2반 기관지.》 그리고나서 이런것을 회상하게 되였다. 《그런데 구호는 어떻게 한다? 갈랴는 어떤 구호가 필요하다는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구 그애를 깨우는 것두 애처럽구》.

어머니는 한참 생각한 끝에 몸소 구호를 하나 궁리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가지 색갈의 인쇄체 글자로 써넣었다. 이윽고 신문을 둘둘 말아서 노끈으로 동여매놓고 나서 빨래를 하러 부엌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갈랴는 그냥 잠만 잤다. 갈랴는 꿈에 봇나무 숲과 커다란 벽보를 보았는데. 토끼들이랑, 다람쥐들, 그리고 곰들이 그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였다.

갈랴는 아침에 잠을 깨였다. 어머니는 벌써 집에 계시지 않았다. 식탁 우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여 있었다. 우유컾 우에 쪽지 편지가 놓여 있었다.

《갈랴야. 말끔히 먹어라. 하나두 남기지 말구. 만일 될수 있거든 그릇들을 깨끗이 정돈해 놓아라. 어머니》.

그렇지만 갈랴는 늦게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정돈은커녕 학교에 가는것도 늦어질 판이였다. 갈랴는 다급스레 식사를 하고나서 노끈으로 동여매놓은 종이말이를 덮치듯이 집어들고 학교로 달려갔다. 거리로 걸어 가면서 갈랴는 줄창 종이말이속을 들여다 보았다. 신문이 어떻게 되였을까? 그렇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것처럼 종이말이 속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갈랴는 간신히 종이 울리기전에 학교에 닿았다. 휴식 시간에 녀학생들이 갈랴를 둘러쌌다.

《갈랴야. 신문이 다 됐니?》.

《다 됐어!》.

녀학생들은 천천히 종이 말이를 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친》자가 보였고 다음으로는 《선》자가 보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봇나무 회차리로 엮은것 같은 《친선》이란 제목이 전부 드러났다.

모두들 소리를 질렀다.

《야. 참 멋있구나!》.

문득 까쨔 쏘모와가 입을 열었다.

《가만 있거라, 애들아. 가만 있어! 어떤 구호가 좀들 보란 말이야! 이런 구호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녀학생들은 구호를 내리 읽고나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런 구호는 있을 수 없어! 갈랴두 참! 이게 무슨 구호냐!》.

갈랴는 하마트면 울음보를 터뜨릴번 하였다. 엄마가 죄다 망쳐먹었지! 인제는 신문을 전부 처음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겠으니!

갈랴는 종이를 둘둘말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상급 지도원이 다가 왔다.

《어디. 갈랴야, 좀 보자. 야 참 멋있는 신문이로구나!》.

《그렇지만 구호는 어떻습니까?》.

《구호두 참 좋다! 훌륭한 구호야! 이 신문은 반드시 강당에 내다 붙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신문을 강당 벽에 내붙이게 되였고, 그래서 모두가 그 멋있는 제목 《친선》과, 갈랴의 어머니가 다채로운 글자로 신문 전 길이대로 길게 쓴 구호를 읽게 되였다.

《어머니를 돕는 어린 딸들 만세!》.

그런데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나자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다.

《갈랴야, 그래 어떻더냐. 신문이 맘에 들더냐?》.

《맘에 들었어요!》 갈랴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냉큼 일어서더니 재빨리 식탁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갈랴의 코'등에다 입을 맞추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어머니를 돕는 어린 딸들 만세!》.

(송 고 천 역)

가축 사료를 마련하면서

지금 우리 학교대 소년단 원들은 씰로쓰를 만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일'손을 열성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옥수수, 수수, 조 밭에서 벌레 잡이와 퇴비를 만드는 풀베기

를 협조하여 조합 어머니 아버지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씰로쓰를 생산하는 일에 우리 소년단원들이 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마을 어른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리 영순 동무를 비롯한 4분단 동무들과 서흥지구, 관청지구 동무들이 더욱 모범이랍니다.

이 동무들은 조합 소들이 놀고 있는 틈을 타서 직접 자기들 손으로 소를 이끌고 산과 들판으로 나가 풀을 먹이기도 하고 어떤 동무들은 조합 가축사에서 염소를 데리고 나가 풀을 먹이면서 씰로쓰 원료도 많이 베여다 드리군 하였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조합 아저씨들로부터 씰로쓰 재료는 능쟁이 클로바 등 기타 여러가지 풀들이 될 수 있다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씰로쓰 재료가 있는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후부터 씰로쓰 재료가 많은 풀밭을 발견하면 곧 조합에 알리기도 하고 직접 자기들 손으로 베여 조합으로 가져 가기도 했

습니다.

또한 일부 동무들은 씰로쓰 저장고를 만드는데서 손 쉬운 일을 돕기도 하고 씰로쓰 재료를 작두로 써는 일도 해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협조하는 가운데서 씰로쓰는 소, 말, 돼지, 양 등 모든 가축들의 가장 좋은 사료이며 가축들을 건강하게 하여 많이 번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 소년단원 가운데는 자기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동무들도 있는데 겨울에도 사료 걱정을 안하도록 씰로쓰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씰로쓰를 만드는 일에 참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을에 살찐 가축들이 늘어가게 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소년단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씰로쓰 만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일을 열성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함경남도 신창군
광선 인민학교
리 치우

착한 일

지난 일요일이였습니다.

아침 공부를 끝마친 금자는 오후에 어머니를 따라 조합의 논'김을 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덥던 날씨는 해질 무렵에 가서 갑자기 써늘해지더니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논'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함뿍 비를 맞게 되였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맑은 날씨여서 모두 우장(짚으로 엮은비옷)을 안가지고 나갔댔으니까요.

모진 비'바람을 맞고 아저씨들과 함께 돌아오던 금자는 풀밭에 홀로 남아 그냥 비를 맞고 있는 조합소가 눈에 띄였습니다.

아마 조합소를 말아보는 할아버지가 딴 일을 보시느라 미처 나오시지 못했던 모양이지요.

조합소는 길게 늘인 바'줄에 매인채 우둑허니 서 있었습니다.

금자는 아무리 추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길에서 200M 남아 떨어져 있는 조합소 있는데로 뛰여갔습니다.

그는 곧 소 고삐를 풀고 긴 바'줄을 거둔 다음 소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작업반장 최병화 아저씨는 그의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금자는 어머니를 도와 짬만 있으면 집안 일을 돌보며 때로는 조합 일에도 나가 어머니와 함께 일하군 한답니다.

금자의 착하고 부지런한 행동은 오늘 이 조합 마을 어른들의 귀여움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는 공부에서도 항상 최우등을 해왔고 지금 중산군 락생 인민 학교 5학년 3반 학급장으로 분단 동무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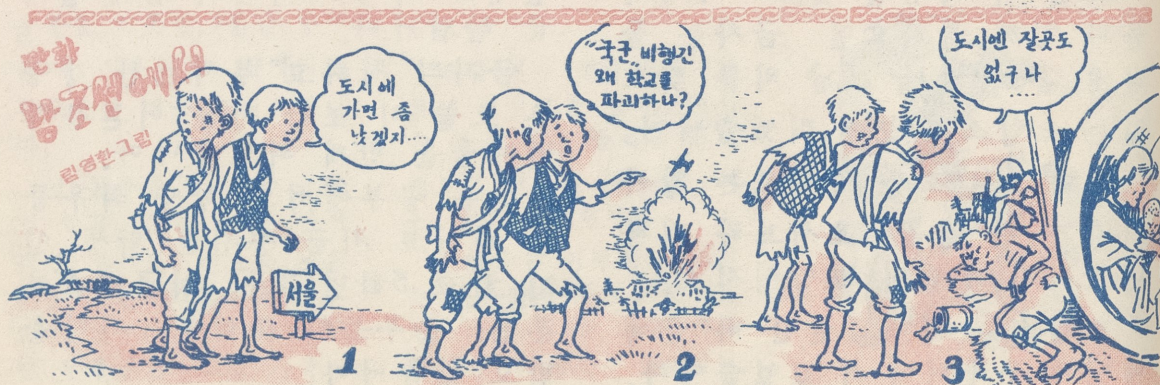
소나기

백 석

학교에 늦어진 2학년 욱이를
여름 아침 소나기가 따라 잡았다.
잔솔밭 고개 넘어 외진 길에서
혼자 가는 욱이를 따라 잡았다.

작난'군이 소나기는 짓궂이게도
게름뱅이 욱이를 놀려주었다.
갑자기 우닥따 가랑'잎도 따리고
갑자기 쏴 하고 솔가지도 흔들고.

소나기는 좋아라고 덤벼들어서
욱이의 머리를 다 적셔주고
욱이의 두볼을 다 적셔주고
욱이의 책보와 신발도 다 적시였다.

그리고는 소나기 길이 바쁜듯
앞 서 가며 욱이를 돌아보고
《학교에 늦어지면 인젠 알았지?
언제나 따라 와서 적셔줄테야!》.

겨우 한 사람이나 건너 다닐 수 있는 징검 다리가 놓인 개굴에서였습니다.

할아버지 한분이 지팽이를 짚고 조심히 그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마즌 쪽에서 한 소년이 뛰여오고 있습니다.

개굴에 다달은 소년은 뛰여오던 달음으로 징검다리로 뛰여듭니다.

할아버지는 징검다리를 거의 건널 무렵에 그 소년과 마주 서게 되였습니다.

《얘. 길을 좀 내 주렴. 그럼 너도 빨리 건너고 좋지 않겠느냐!》.

하고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옆으로 좀 비껴 가십시요. 저는 바빠서 그럽니다》.

소년은 되돌아서지는 않고 한쪽으로 몸을 끼웃해서 할아버지에게 길을 좀 피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너야 냉큼 뛰여 건너 갈 수 있지만 내야 그렇게 할 수 있니?》하고 지팽이를 옮겨 짚으며 조심스레 돌아서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할아버지! 먼저 건너세요》하고 소년은 돌아 나와 할아버지에게 길을 내여 드렸습니다.

개굴 건너 쪽에서 오던 어른들은 《그 소년 참 착하군! 어른들을 그렇게 모셔야지!》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낯을 붉히였습니다. 더 빨리 길을 내주지 못한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안할테다

때—8월 어느 날.

곳—사택 마을

나오는 사람—명철 (4학년)
명호 (그의 동생1학년)

뽈을 차며 뜰에서 놀고 있던 명호는 자기 집 담'벽을 바라보며 《참 멋있게 그려졌어》하고 벙글벙글거렸습니다.

방금 벽에 토끼를 크게 그려 놓고 자기의 솜씨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때에 명철이가 막 뛰여 오다 말고 놀라며—

명철—우리 집 담'벽에다 누가 이런것을 그렸어? (얼굴을 찡그린다)

명호—형! 이제 오나

명철—명호야, 이거 누가 그렸는지 몰라?

명호—왜? 내가 그렸어. 형! 멋있지!

명철—네가? 담'벽에 이런 장난을 하면 집이 쓰게 되냐.

명호—형은 그런 그림 안그렸나 뭐. 그때 영남이네 옆집 담벽에다 사람을 크게 그려 놓구서두…

명철—내가? 언제 그렸어?

명호—영남이 하구 같이 학교에 가면서 그리는 걸 난 봤어

명철—(어쩔 줄 모르다가) 이 자식아 빨리 가서 걸레나 가져와 (명호의 공을 빼앗는다)

명호—내 가져 올께, 공은 인줘.

명철—그래 공을 줄께 걸레를 가져 오지

(명호는 공을 받아 쥐고 희죽히 웃으며 집으로 들어간다)

명철—명호가 봤으니 어쩌나, 빨리 지워버려야지 (한참 생각에 잠긴다)

△명호 걸레를 들고 나와 락서한 것을 죄다 지워 버린다.

명호—형! 이젠 됐지? 깨끗해졌어

명철—됐어. 그게 얼마나 깨끗한게 보기 좋니? 이담부터 그런 짓 하지 말아.

명호—응. 다시는 안할테야!

△명철이가 걸레를 쥐고 영남이네 옆집으로 가려고 할 때,

명호—형! 형두 지우러 가나?

명철—그래 나도 잘못했으니까 빨리 지워 버려야지!

모형 항공기를 날리는 소년(1956,6,28)　　김 창 규 촬영

편집 위원　김 주 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8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8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 8호 총(83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185　값 25 원　52,000부 발행

어진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은 오직 글 읽는 일이다. (박 연 암)

새 학년도에 읽을 책들.

아동 혁명단　한 설야 작　민주 청년사 발행
만 경 대　한 설야 작　교육 도서 출판사 발행
혁명의 꽃봉오리　김 일신 작　민주 청년사 발행
도끼 장군　리 원우 작　민주 청년사 발행
박 연암 선생　윤 세평 작　민주 청년사 발행
강 감찬 장군　최 익한 작　민주 청년사 발행
자연을 사랑하는 동무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편)　민주 청년사 발행
주위 사물의 이야기 (상, 하)　민주 청년사 발행

새로 나올 책들.

별 나 라　민주 청년사
(이 책은 해방 전에 《카프》 작가들이 쓴 70여편의 작품을 실었다)

길 동 무　민주 청년사
(이 책은 아름답고 보물도 많은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을 안내해 주는 길 동무가 될것이다)

기다리던 날 (리 원우 아동 문학 작품집)
리 순신 장군 (그림 이야기) (정 현웅 그림)
물어보라 대답할께 (과학 이야기)
표 재원에서 (과학 이야기)